

중년남성의 가족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융합적 연구

김정숙
공주대학교 간호학 박사

A Converged Study on the Influence on the Depression of Family & Job Stress and Middle aged Men.

Jeong-Suk Kim

Graduated from Ph.D. in Nursing, Graduate School, Kong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가족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 되었다. 본 연구는 C시와 K시 지역에 거주하는 직장인 중년남자 127명을 대상으로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며 자료는 SPSS 21.0 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ANOVA, t-test, Pearson's correlation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2018년 7월 1일 부터 2018년 8월 20일 까지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년남성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우울의 차이는 경제상태와 노후불안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직무스트레스($\beta=0.288, p<.001$), 노후불안정도($\beta=0.142, p<.001$), 경제상태($\beta=0.035, p<.001$), 가족스트레스($\beta=0.016, p<.001$)순으로 확인 되었다. 가족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해소방법으로는 운동, 취미생활, 신체이완 등 건강관리와 가족갈등 다루기를 해야 할 것이며 이는 우울을 예방하고 우울수준을 낮출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가족스트레스, 우울, 융합, 직무스트레스, 중년남성

Abstract The study was investigate the effect of family stress and job stress on depression in middle man. A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127 C & K city middle aged mans from July 1 to August 20 2018.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WIN 21.0 program, descriptive statistics, ANOVA, t-test,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calcu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ifferences in family stress job stress depress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me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economic status and old age instability. The variables affecting depression are job stress($\beta=0.288, p<.001$), aging anxiety($\beta=0.142, p<.001$), economic status($\beta=0.035, p<.001$), family stress($\beta=0.016, p<.001$). As a way to reduce family stress and job stress, it is necessary to deal with health care and family conflict such as exercise hobby life relaxation.

Key Words : Family stress, Depression, Convergence, Job stress, Middle aged me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중년기에는 신체적으로 노화현상이 일어나며 인생에

서의 전성기이다. 인생의 중년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전환점으로 40대 이상을 포함한다고 하였다[1]. 남성의 중년은 여성의 폐경기에 해당되는 사건은 없지만, 심리적 폐경 즉, 가족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의 부담으로

*Corresponding Author : Jeong-Suk Kim (nursekim0305@hanmail.net)

Received September 18, 2018

Accepted November 20, 2018

Revised October 26, 2018

Published November 28, 2018

정서적 초조감 등 즉, 우울감을 느낄 수 있다[2]. 우울은 가장 흔한 정신장애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미국 등 서양에서는 여성의 경우 11-26%, 남성의 경우 6-10% 정도가 평생에 한번 이상 우울함에 걸릴 위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3]. 대한민국에서는 평생유병률이 이보다 적은 3-5% 정도로 조사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인구의 5-10%가 우울을 앓고 있으며, 3-6%가 치료를 요하는 중증 우울장애로 추정된다[4]. 연령과 성별을 함께 고려한 경우에는 중년남성의 우울 수준이 14.30점으로 중년여성의 11.70점 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5]. 중년남성은 자신의 삶에 흥미를 상실하고 자신의 성공을 무의미하게 느낄 수 있는데 특히 40대 남성의 80%가 정서적 스트레스, 무력감, 우울 등을 경험한다[6]. 중년남성 우울증의 특성은 상실감과 성질을 부리거나 신경이 매우 예민하고 안절부절 등 주의를 분산하는 행동들이 주요문제점으로 지적된다[7]. 중년남성들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융통성이 없는 행동을 한다. 또한 우울증으로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우울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역기능적인 습관을 지속적으로 행동화하기도 한다[8].

가족스트레스는 특별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 가족 체계에 변화를 요구하는 압력이 가해짐으로써 평형상태에 변화가 생기며 안정된 가족생활에 고도의 긴장감을 초래한다[9]. 가족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처전략으로 스트레스와 긴장을 초래하는 주요인들을 제거하고 현실에 긍정적인 태도로 정서적 안녕상태를 유지한다면 매우 만족스러운 가족관의 상호작용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10].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족간의 유대관계는 중년남성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가족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는 우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직무스트레스는 직무육구와 개인의 역량이 스스로 인지된 불균형이며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이다. 중년남성은 직장이라는 환경에서 동료, 상사와의 갈등 업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직무스트레스의 주된 요인이 된다[11]. 또한 조직 내에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 불안장애, 소화기장애 등을 경험하며 이는 직무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고 직무스트레스가 증가될수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이 높아진다[12]. 이에 지역과 대상을 다르게 하여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중년남성의 가족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는 우울의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직 국내 선행연구는 중년남성의 가족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결과는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가족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 우울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고 우울에 미치는 융합적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중년남성의 우울증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남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융합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가족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우울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우울을 포함한 주요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가족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가족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융합적인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우울의 차이를 파악하고,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융합적이며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C시와 K시 지역에 거주하는 40-62세 사이의 직장생활을 하는 중년기 남성을 임의로 추출하여 2018년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140부를 배포하여 127부가 회수되었고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자료 13부를 제외하고 127부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 선정은 최근 4주 이내에 우울증을 경험하지

않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자로 대상자수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회귀분석방법에 의해 유의수준 .05, 검정력 .8,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에서 변수 3개로 하였을 때 총 119명이 되었다. 본 설문은 127명을 설문하였으므로 표본크기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2.3 연구도구

2.3.1 가족스트레스

Boss[13]의 FILE(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 and Changes)를 기초로 Lee[14]가 수정 보완한 도구로 총 22 문항이며 가족 간의 관계(8문항), 가족경제(7문항), 직업 관계(6문항), 가족의 건강(2문항), 가족의 상실감(1문항)이 포함된 내용으로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각 항목별로 총점이 높을수록 인지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8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3이었다

2.3.2 직무스트레스

우리나라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안전공단에서 Jang 등[15]에 의해 개발된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 (Korean Occupation Stress Scale: KOSS-SF)을 사용하였다. 직무욕구도 4문항, 자율성결여 4문항, 갈등 3문항, 직무의 불안정 2문항, 조직의 체제 4문항, 보상체제 3문항, 직장예절 4문항의 7개 영역 2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4점 척도이며 총점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15]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7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9 이었다.

2.3.3 우울

Radloff[16]가 개발한 도구를 Gu[18]가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20문항의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우울 7문항, 긍정적 기분 4문항, 신체적 문제 7문항, 인간관계 2문항 등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우울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대상자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 '드물게(1일 이하)' 0점, '보통(1-2일)' 1점, '자주(3-4일)' 2점, '매우 자주(5-7일)' 3점에 응답을 하였다. 긍정적 문항(4,8,12,16)은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을 말한다. 가능한 총점은 0-60점이며, 세계적으로 가정 널리 사용되고 있는 측정도구로 일반적으로 CES-D 점수가 16

점 이하를 가능한 우울증(possible depression), 21점 이상을 추정우울증(probable depression) 25점 이상을 확정우울증(definite depression)으로 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85, Ha[18] 연구에서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의 빈도분석, t-test와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Linear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Table 1을 보면 연령은 40대가 19.7%, 50대는 57.5%, 60대가 22.8%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중졸 17.3%, 고졸은 38.6%, 대졸 44.1%였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14.2%, 기혼이 85.8%였다. 직업은 회사원이 53.5%, 공무원 15.7%, 자영업 30.7%였다. 현 직무경력은 10년 미만이 6.3%, 30년 이상이 10.2% 이었다. 경제 상태는 매우 여유롭다가 10.2%, 매우 부족하다가 29.9%, 노후불안도는 걱정 없다가 9.4%, 매우 불안이 52.8%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27)

Variable	Division	N	%
Age(year)	40-49	25	19.7
	50-59	73	57.5
	60-62	29	22.8
Education	middle	22	17.3
	high	49	38.6
	university	56	44.1
Marital status	single	18	14.2
	married	109	85.8
Job	employee	68	53.5
	official	20	15.7
	self job	39	30.7
Job carrier (year)	>10	8	6.3
	10-19	28	22.0
	20-29	78	61.4
	≥30	13	10.2
Economic status	very relaxed	13	10.2
	relaxed	19	15.0
	lack	57	44.9
	very lack	38	29.9
Aging anxiety	stable	12	9.4
	mild anxiety	48	37.8
	very anxiety	67	52.8

3.2 우울과 관련 변인 정도

Table 2를 보면 가족스트레스의 평균점수는 2.69점, 직무스트레스는 2.90, 우울은 2.87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family stress, job stress, Depression

Variable	M±SD	Range
Family stress	2.69±0.32	1.78-3.44
Job stress	2.90±0.37	2.10-3.90
Depression	2.87±0.24	2.20-3.40

3.3 각 변수의 점수 정도

Table 3을 보면 가족스트레스는 51-110점이 23.6%, 직무스트레스는 61-96점이 17.3%, 우울은 25점 이상 확정 우울증이 32.2%로 나타났다.

Table 3. The Score of each Variable

Variable	Score Range	N(%)
Family stress	1-40	42(33.1)
	41-80	55(43.3)
	51-110	30(23.6)
Job stress	1-30	45(35.4)
	31-60	60(47.3)
	61-96	22(17.3)
Depression	1-16	35(27.6)
	21-24	51(40.2)
	≥25	41(32.2)

3.4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

Table 4에서 가족스트레스는 직무스트레스($r=.681, p<.001$), 우울($r=.216, p<.005$)과 직무스트레스는 우울($r=.326,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4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N=127)

Variable	Family stress	Job stress	Depression
Family stress	1		
Job stress	0.681** (.000)	1	
Depression	0.216* (.015)	0.326** (.000)	1

**p<.001
*p<.05

3.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가족스트레스, 우울의 차이

Table 5를 보면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스트레스의 차이에서는 연령, 교육, 결혼상태, 학력, 직무경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경제상태($F=3.805, p=0.002$), 노후불안정도($F=2.623, p=.00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에서는 연령, 교육, 결혼상태, 학력, 직무경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경제상태($F=2.261, p=0.003$), 노후불안정도($F=2.102, p=.002$)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우울의 차이에서는 연령, 교육, 결혼상태, 학력, 직무경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경제상태($F=3.841, p=0.015$), 노후불안정도($F=0.539, p=.003$)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3.6 대상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Table 6은 대상자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 경제상태(매우 여유롭다 0, 기타 1), 노후불안정도(매우 불안 0, 기타 1)를 더미변수로 전환하고, 가족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식은 유의미하였으며($F=50.235, p<.001$) 설명력은 46.2%였다. 우울에 가장 큰 영향요인은 직무스트레스($\beta=0.288, p<.001$), 노후불안정도($\beta=0.142, p<.001$), 경제상태($\beta=0.035, p<.001$), 가족스트레스($\beta=0.016, p<.001$)순으로 확인되었다.

잔차의 독립성 검정을 위해 Durbin- Watson 값을 구한 결과 1.863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공차한계는 0.526-0.865로, 분산팽창인자는 1.167-2.204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fluencing factor for depression (N=127)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s	2.282	.253		9.013	.000
Economic	0.008	0.025	0.035	0.380	.000
Aging anxiety	0.052	0.032	0.142	1.658	.000
Family stress	0.011	0.084	0.016	0.127	.000
Job stress	0.214	0.089	0.288	2.398	.000
Adjusted R ² = 0.462, F=50.235 p=.000***					

***p<.001

Table 5. Difference of family stress, job stress and depress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27)

Variable	Division	Family stress		Job stress		Depression	
		M±SD	t/F(p)	M±SD	t/F(p)	M±SD	t/F(p)
Age (years)	40-49	2.81±.36	1.284 (.233)	2.97±.46	0.489 (.935)	2.84±.30	1.499 (.134)
	50-59	2.60±.30		2.84±.33		2.84±.22	
	60-62	2.81±.32		3.00±.37		2.97±.20	
Education	middle	2.74±.22	.586 (.861)	2.77±.19	1.386 (.172)	2.97±.24	0.874 (.575)
	high	2.63±.27		2.89±.40		2.87±.23	
	university	2.73±.39		2.96±.38		2.88±.24	
Marital status	single	2.56±.15	1.969 (.051)	2.54±.32	1.893 (.054)	2.89±.29	0.829 (.621)
	married	2.71±.34		2.45±.28		2.90±.31	
Job	employee	2.63±.30	0.646 (.811)	2.95±.39	1.450 (.142)	2.89±.24	2.188 (.017)
	official	2.72±.33		2.74±.29		2.79±.19	
	self-job	2.68±.32		2.91±.37		2.87±.26	
Job carrier (year)	>10	2.69±.32	0.736 (.724)	3.33±.51	1.550 (.105)	2.87±.26	0.954 (.497)
	10-19	2.82±.30		2.98±.35		2.87±.20	
	20-29	2.62±.32		2.76±.27		2.93±.30	
	≥30	2.90±.27		3.34±.25		2.89±.23	
Economic status	very relaxed ^a	2.60±.35	3.805(.002) a<b<c,d	2.66±.29	2.261 (0.003) a,b,c<d	2.84±.17	3.841(0.015) a<b,c,d
	relaxed ^b	2.71±.36		2.80±.28		2.78±.28	
	lack ^c	2.70±.32		2.85±.26		2.94±.23	
	very lack	2.68±.30		3.10±.48		2.80±.20	
Aging anxiety	stable ^a	2.77±.21	2.623(.001) a,b<c	3.05±.31	2.102 (0.002) a<b<c	2.79±.21	.539 (.003) a,b<c
	mild anxiety ^b	2.59±.31		2.76±.28		2.85±.28	
	very anxiety ^c	2.75±.34		2.97±.41		2.96±.21	

4. 고찰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가족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 우울정도를 파악하고 가족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중년남성의 우울증개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가족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2.69점으로 Park[12]의 연구보다 낮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의 결과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대상자의 개인의 특성, 직장의 분위기, 환경적 요인 등의 이유로 추측해 볼 수 있으며 이를 반영한 변수와 더 많은 대상을 포함한 후속연구를 통해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년기 남성의 우울은 가능한 우울 35명(27.6%), 추정적 우울 51명(40.2%), 확정적 우울 41명(32.2%)으로 상당수가 우울증상을 겪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이는 Ha[18]의 연구에서 40-65세 이하 중년기 남성의 우울이 42.4%라 보고한 분석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며[19] 많은 중년남성들이 우울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우울은 현대인의 특히 중년남성의 중요한 정신건강 지표임이 드러났다. 이에 중년남성들의 우울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캠페인, 우울 자가선별검사 등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20,21].

본 연구에서 노후에 대한 불안은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에 대한 불안이 높을수록 우울감정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중년남성들은 우울, 불안이 자살사고로 이어져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전파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준비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12].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회귀분석결과 요인은 직무스트레스, 노후불안정도, 경제상태, 가족스트레스 순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우울은 직무스트레스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기존선행연구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냈다[12]. 그 이유는 지역과 대상자에 따라 직업에 따른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해서는 후후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중년남성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직장 내 과다업무, 동료들 간의 의사소통 불일치, 승진을 위한 경쟁 등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직무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해소방법으로 운동, 취미생활, 사우나, 목욕 등을 하여 건강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에도 과도한 직무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가족스트레스가 높아지는 이유는 자녀의 성장과 가족 갈등, 가족 내 역할 변화가 중요한 변수로 보인다. 그러므로 중년기에는 가족 간의 상호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사료된다.

중년남성의 우울은 직무스트레스와 가족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직무스트레스와 가족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선행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였다[1,12].

가족 간의 상호관계에 만족하는 남성에 비해 만족을 하지 못하는 남성의 경우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4-5배나 높고[19,20], 자녀와의 관계가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21]는 본 연구와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중년남성의 우울은 가족관련 변인 즉, 월수입이나 막내자녀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2]도 본 연구와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가족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울을 예방하고 가족스트레스를 낮추어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1]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중년남성의 가족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일부지역 일부 대상자만 설문조사 실시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에는 한계점이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년남성의 가족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가족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중년남성의 우울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간호중재 관련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가족스트레스와 직무스트레스는 우울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스트레스를 낮추고 우울을 예방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일반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중년 남성들의 우울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에 비하여 중년기 남성들에 대한 연구는 관심이 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 소외되어왔던 중년남성을 대상으로 우울 영향요인에 대하여 통계적 분석을 한 것은 사회적 분위기조성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1] S. S. Beak(2016). A Structural Model for Depression in Middle-aged Men. Application of stress-coping model. Master's dissert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Kongju.
- [2] J. I. Lee. & G. H. Kim. & S. H. Soon(2003).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Man. *Korean society of Adult Nursing*. 15(3). 422. DOI: 10.4040/jkan.2003.15.3.422
- [3] S. H. Jeon(2015). Association between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y and depression of middle-aged men and women. Master's dissertation. Ewha University, Seoul.
- [4] Neuropsychiatry 2nd edition(2005) Central Cultural Publishing Co.
- [5] N. H. Jo. & C. H. Seong(2016). Effects of stress and self esteem on depression in Middle-aged woman & Middle-aged M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3) DOI: 10.15207/JKCS.2016.7.6.089.
- [6] U. K. Byun. (2011). Jun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 People with Mental Disabilities using Mental Health Cent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2), 157-166.
- [7] S. C. Shin.(2012). A Study on the PossibilityofChristianity Counselling over the Depression of the Unemployed Middle-aged. Master's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 [8] S. M. Kwon(2000). Depression stagnation and despair of swamp. Hakjisa.
- [9] H. S. Kim & S. S. Kim(2017). A Converged Study about Influences of Job Stress, Job Security, Depression, Family Bond, Subjective Health Status Social Support on Quality of Life in Married Middle-Aged ma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3). DOI: 10.15207/JKCS.2017.8.3.101.
- [10] M. S. Kang(2008). Work and Family Stressor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the Middle-aged Married Men in Korea. Korean. Master's dissertation. Silla University, Busan.
- [11] H. M, Run & S. B. Oim (2012). depression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depending on the climacteric symptoms of middle-aged male workers. *Korean Academic Society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1(3). DOI: 10.5807/kjohn.2012.21.3.239.
- [12] M. J. Park(2013). Affecting depression in middle-aged men. Master's dissertation. Seonam University, Namwon.
- [13] Boss. P. (2001). Family stress management; a contextual

- approach. Thousand Oaks, CA : Sage Publications.
- [14] H. O. Lee(2011). The Effects of Family Resilience on Family Stress Cognition and Stress Coping Behavior in Married Middle-Aged Men. Master's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15] S. J. Jang. & S. B. Goo. & D. B. Kang(2005).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of Korean job stress measurement tool.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Science* 17(4). 297-317.
- [16] Radloff. L.S.(1977). The CES-D Scale :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17]. G. G. Gu & S. J. Choi& B. C. Yang(2001). Developed an integrated Korean version of CES-D.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1). 85-97.
- [18] T. H. Ha(2016). Development of the Structural Model of Middle-aged Men's Subjective Quality of Life.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14(5).
DOI: 10.14400/JDC.2016.14.5.125
- [19] J. L. Lee(2011). Characteristics of object relations according to subtypes of depression. Doctoral dissertation. Chonbuk-National University, Seoul.
- [20] H. G. Han & G. O. Song(2001). The influence of family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on the health of middle-aged men. *Korean Family Association Family and Culture*.13(1) 51-73.
- [21] H. S. Kim & S. S. Kim & M. H. Park(2018). A Converged Study on the Influence on the Quality of Life for Early and Late Middle-aged Me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6).
DOI: 10.15207/JKCS.2018.9.6.133

김 정 숙(Kim Jeong Suk)

[정회원]



- 2018년 8월 : 공주대학교 간호학박사
- 관심분야 : 정신, 여성, 기초간호과학
- E-Mail : nursekim0305@hanmail.net